

2004년이 외면한 양서들

빛보지 못했으나 놓치기 아까운 책 허다...
'거꾸로 매긴 베스트셀러'

베스트셀러에 올라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책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책들이 더욱 많은게 현실. 그러나 웬만한 베스트셀러보다 질과 격에 있어서 한수위라고 할 수 있는 것들도 많다. 마케팅과 독자들의 즉흥적 기호, 문화적 유행 등 원인은 다양하다. 개중엔 뒤늦

게 스테디셀러로 명맥을 유지하는가 하면, 아예 서가 깊숙이 먼지를 뒤집어쓰고 사장되는 일도 허다하다. 놓치기 아까운 2004년의 '빛보지 못한' 양서들. '거꾸로 매긴 베스트셀러'라고 할까. <출판저널> 기자들의 취재일을 바탕으로 한번쯤 꼭 읽어볼만한 책들을 메모한다.

바둑 두는 여자

산사 지음
이상해 옮김
현대문학
320쪽
값 9,000원



자유분방하고 대담한 소녀는 모순과 위선으로 점철된 어른들의 세계를 증오하며 자신의 삶을 의지대로 지배하고자 한다. 소설 속에서 바둑은 거역할 수 없는 운명의 흐름 속에 처한 소녀가 한 나라의 역사를 읽고, 자아를 발견하며, 사람을 감지해가는 특수한 매개물이다. 2001년 공쿠르 데 리쎬앙 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명랑

천운영 지음
문학과지성사
278쪽
값 10,000원



그로테스크한 감성으로 새로운 여성 미학을 내보인 천운영의 두 번째 소설집이다. 육식성의 욕망을 집요하게 탐구하고 생생하게 묘사했던 전작 <비늘>과 달리 심리적 환상적 사건 활용, 초점 이동과 시점 변화 등의 다양한 소설적 장치들을 활용해 문학의 자리를 넓히고 있다. <명랑> <늑대가 왔다> <멍게 뒷맛> <모퉁이> 등 8편의 단편을 담고 있다.

행복

정지아 지음
창비
256쪽
값 8,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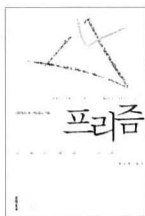


장편 <빨치산의 딸>을 낸 정지아의 첫 소설집.

<행복> <미스터존> <그리스 광장> 등 등단 이후 발표한 8편의 작품을 담고 있다. 문학평론가 김사인은 "삶의 배후에 깃든 삭막함과 외로움을 향해 정지아의 감각은 섬세하게 열린다"라고 평가했다. 단편 <행복>은 2003년 문예지에 발표된 소설 가운데 '최고의 작품'으로 추천받기도 했다.

프리즘

테오도어 W.
아도르노 지음
홍승용 옮김
문학동네
352쪽
값 15,000원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대표하는 20세기의 지성 아도르노의 문화비평 에세이집이다. 아도르노는 간판에세이 <문화비평과 사회>에서 문화와 문화비평이 비판적 의미를 상실하고 현실개입을 포기하며 소비재가 되어 단순한 이데올로기로 타락해온 현상에 주목한다. 1930년대 말에서 1950년대 초반까지 발표한 열두 편의 글을 담고 있다.

철학적 사유와 진리에 대하여

(전 2권)
김형효 지음
청계
각권 400쪽 내외
값 1권 16,000원·2권 18,000원



책은 동서양의 철학사를 세 가지 진리와 사유로 정리한다. 유위적 사유와 현실성의 진리, 당위적 사유와 이상성의 진리, 그리고 무위적 사유와 사실성의 진리가 철학사에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세 가지 유형. 저자는 서양의 이

성철학이 가장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무위적 사유와 사실성의 진리였다고 말한다.

피아졸라

마리아 수나사아치,
사이먼 콜리어 지음
한은경 옮김
을유문화사
516쪽
값 25,000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골목에서 가난한 이민자들을 위해 탄생한 탱고. 탱고를 클래식, 재즈와 결합해 대중화 작업을 시도한 피아졸라의 평전이다. 1970년대 아르헨티나의 혼란시기에 문화와 정신을 부활시키는 데 일조한 음악가의 삶을 재평가한 시도가 돋보이는 저작물이다. 평전으로 재평가 될 만한 음지 속의 인물을 복원하고 있다는 데서 점수를 주고 싶다.

2백년의 아이들

오에 겐자부로 지음
이승희 옮김
문학수첩
302쪽
값 8,500원



민간 전승 이야기를 판타지와 접목시켜 독특하게 풀어낸 오에 겐자부로의 성장소설. 소설가인 아버지가 엄마와 같이 미국대학에 연수를 간 사이에 여름방학을 아버지의 고향 숲속 마을에서 보내게 된 마키, 아카리, 시쿠 삼남매의 모험을 다루었다. 소설의 출발은 1984년의 시코쿠 숲속 마을. 그곳에서 삼남매는 타임머신을 타고 120년 전과 80년 후의 세계를 찾아가 당시의 사람들과 교류하며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고민한다. 삼삼사의 모험을 통해 지금 현재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들을 철

학적인 질문으로 내놓고 있다. 어른들이 봐도 전혀 유리지 않음 철학적인 판타지다.

신화가 된 이름

The Beatles

한경식 지음

더불어책

566쪽

값 12,800원



대중음악사에 큰 족적을 남긴 비틀즈의 초기 활동상을 전기로 다룬 책. 각 멤버의 출생부터 비틀즈가 전 세계 대중음악계를 초토화시키며 유명세를 날리던 1964년까지를 배경으로 비틀즈 멤버들의 활동사를 소개한다. 이 책의 장점은 비틀즈의 역사 중 논란이 되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진실에 보다 가깝게 다가간다는 점. 중간지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비틀즈를 평가하고 있다는 데서 점수를 주고 싶은 책.

아로와

완전한 세계

김혜진 지음

바람의아이들

528쪽

값 13,000원



겨울 방학 첫날, 재밌는 책을 찾아 도서관에 갔던 열두 살 여자아이 아로가 보랏빛 보석 브로치가 달린 이상한 책을 펼쳤다가 '완전한 세계'로 빠져들게 된다는 이야기. 지극히 평범한 아이를 '읽는이'로 만들어버린 저자의 기발한 상상력이 눈에 띈다. 고학년 아이들은 물론이고 청소년들도 함께 볼 수 있는 판타지물로 우리나라 주니어 판타지의 가능성을 살펴 보게 해주는 책이다.

씨앗의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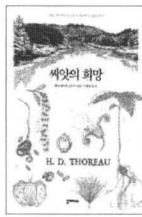
헨리 데이빗 소로우 지음

이한중 옮김

갈라파고스

248쪽

값 9,800원



녹색사상가이며 자연과학자인 저자가 생애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숲의 이야기. 자연에 대한 과학적이고 세심한 관찰은 다양한 씨앗과 나무, 동물들의 이야기를 '숲의 언어'로 들려준다. 자연을 탐구하고 표현하는 것에 문학의 목적을 둔 소로우는 10년간 고향땅의 자연사를 담으려는 기획을 하기도 했다. 세상이 지루

한 사람에게 '발견의 눈'을 제공하는 책이다.

한국 현대 시와

웃음 시학

이순욱 지음

청동거울

326쪽

값 20,000원



웃음은 삶의 불안과 긴장을 해소시켜 주는 묘약, 한국문학사에서 웃음은 어떤 의미일까. 유머, 웃음, 코믹, 희극이라는 용어아래 이루어진 웃음 시학의 체계를 정립하고 현대시에 나타난 웃음의 다양한 양상과 의의를 다룬 책이다. 풍자, 유머, 넌센스로 나누어 웃음의 맥락을 고찰하는 과정을 통해 따분할 수도 있는 현대시 이론을 흥미롭게 밝혔다.

논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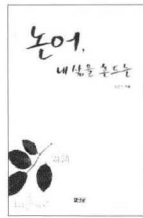
내 삶을 흔드는

안은수 지음

명상

252쪽

8,500원



개인의 일상에서부터 사회, 세계의 다양한 문제를 '논어식'으로 해석한 책이다. 사회는 분열돼가고 사람들은 이기주의가 되가는 현실에서 자기 점검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는 공자의 주된 가르침을 저자의 경험과 함께 전한다. 《논어》중 50여개의 문구를 풀어 쓴 것은 현대적 실용서 이상의 귀중한 가르침이다.

2만 달러의

마술 게임

김종찬 지음

새로운사람들

252쪽

값 12,000원



'2만 달러 시대'의 논리를 검증하고 대안을 제시한 책이다. 주식은 부의 창출이 아니며 주가 상승만으로는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로 진입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과거 폐습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한국 경제를 진단하며 각종 이익집단의 충돌이 많음을 지적, 미래 전략산업을 전망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학벌 사회

김상봉 지음

한길사

446쪽

값 20,000원



한국에서 학벌은 이대로 영원할 것인가? '학벌없는 사회' 정책위원장이 저자가 파헤치는 한국의 학벌문제. 그는 학벌이 막연한 집단이 아니라 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실체적 사회집단이라고 정의하며 그에 의해 권력이 독점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미신 비판, 서울대 학부 폐지, 권력분산의 제도화, 교육개혁 등 향후 학벌사회를 타파하기 위한 여러 대안을 제시한다.

근대 도시 목포의

역사 공간 문화

고석규 지음

서울대학교출판부

338쪽

값 15,000원



목포가 항구라는 사실 말고, 목포 시가지의 상당부분이 갯벌이거나 바다에 속했다는 내력을 아는 사람은 적다. 책은 목포라는 도시의 공간과 영역이 개항 이래 어떻게 생성됐는지, 목포 문화의 특성이 형성된 과정 등 목포의 역사를 담았다. 이러한 역사는 목포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생활?문화적 속성, 문화적 기질의 역사와 연계돼 있다.

시앤티아

최종덕 지음

당대

248쪽

값 10,000원



'과학에 붙여넣는 철학적 상상력'이란 부제처럼 과학에 대한 철학적 글쓰기를 시도하고 자연과학의 성과를 인문학적 질문방식으로 재구성한 책이다. 과학에 대해 문외한인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현실, 저자는 과학과 사회, 과학적 세계관에 대해 고찰하며 이러한 현실을 반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메타과학의 문제점과 아울러 우주론 등 최신과학도 다루고 있다.

정리 | 홍이현 기자